

마태복음 27 장

예수님의 십자가-육체적 고통, 정신적 학대, 하나님의 저주 (찬송 285 장)

2022-1-7, 금

맥락과 의미

2022 년 새해도 우리는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용서 해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주십니다.

27 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줌(1-2 절)
2. 유다는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음(3-10 절)
3.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고 사형을 선고(11-26 절)
4.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으심 (27-54 절)
5. 예수님의 장례(55-61 절)
6. 대제사장들의 파수꾼이 무덤을 지킴(62-66 절)

예수님은 땅에서 많은 모욕과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1.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줌(1-2 절)

지난 밤에 비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을 새벽에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로 모여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총독이 일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담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2. 유다는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음(3-10 절)

유다는 뉘우치고 “마음의 후회”를 했으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악한 자도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서도 장자권을 잃었을 때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히브리서 12:17).

유다는 받은 돈을 성전에 던지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의 돈이라 성전에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토기장이의 밭을 사 가난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증거가 영원히 남게 했습니다. 유다가 자살한 후 그가 그리스도를 판 값으로 던지며 남긴 은 30 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은 예레미야 18:2, 스가랴 11:13 의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감성적으로 후회하는 데에만 머물지 말고 참으로 회개를 하는 자가 됩시다. 지적으로 바로 알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새 삶을 삽시다.

3.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고 사형을 선고(11-26 절)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후 대제사장들의 고소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직자의 재판에 핵심적인 대답은 분명히 하셨으나 헛된 고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도 비난받는 상황에서 해야 할 핵심적인 말만 하는 법을 배우시다. 불필요한 변명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나 대중의 목소리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비겁하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비겁한 자가 되지 맙시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기 얻는 것을 시기하여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부는 유월절 명절에 죄수를 석방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예수와 바나바(폭동과 살인을 일으킨 자) 중 누구를 석방하기를 원하느냐?”(17,18 절).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흥분한 민중은 살인자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시기심은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논쟁을 좋아

하면 시기심을 낳습니다(딤후 6:4). 시기심은 증오(딤후 3:3)와 위선(벧전 2:1)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 살인죄가 시작된 줄 알고 지금 바로 회개합시다.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정에 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의롭다”고 증언했습니다. 형벌을 내리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왕”을 위해 변호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부분 2 장에서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때 “가짜 왕” 헤롯은 놀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자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마 2:6, 미가 5:2)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자” “총독”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꿈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 왕에게 협력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27 장에서도, 꿈의 인도를 받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진짜 총독인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지 말라고 가짜 총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남자들(태어날 때)과 한 여자(죽을 때)를 통해서, 왕과 총독 앞에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임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인으로 사형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진노를 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4.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으심(27-54 절)

1)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놀리며 모독(27-31 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대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뺨을 맞고,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보다 이러한 모욕, 정신적 학대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2) 끌고다로 가서 십자가에 못박음(32-38 절)

예수님께서 지쳐서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지웠습니다.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

면 십 리를 가라”(5:39,40,41)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가게 하는 것, 정부의 강제 노역을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곧 강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32 절).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이 들 때도 주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지고 갑시다.

3) 유대인들의 조롱(39-44 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a)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39-40 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40 절). 정확히 옳기면, “네가 만일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인데, 문법적으로 특이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4:3,6 절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 어색한 표현을 썼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아들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리라.” 사단이 한 표현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b)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했습니다(41-43 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라.”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영광의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이 정신적, 영적 고난이 어떤 고통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c)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 두 명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44 절).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중 한 명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눅 23 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당할 것이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 자신이 먼저 당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1,12).

그리스도께서는 기쁘게 욕먹으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욕먹으며 고

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와 대항하며 싸우지 말고 기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4) 예수님의 죽으심(45-54 절)

예수님은 제 3 시(오늘날 오전 9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 6 시부터 9 시까지(정오부터 오후 3 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난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리셨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었습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를 대신하도록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제 9 시(오후 3 시)에 예수님은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때, 성소 휘장이 찢렸습니다(51 절). 휘장은 지성소(혹은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커튼입니다. 높이 18m, 넓이 9.1m 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히브리서 9:12,24, 10:19-20).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의 지성소 안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믿고 의지하며, 찢긴 휘장 사이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3 일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묻혀 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5. 예수님의 장례 (55-61 절)

1)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의 증인 여인들(55-56, 61)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공개적으로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며 식사 등으로 섬기던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 계속 있었습니다(54 절).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온 막달라 마리아(눅 8:2) 같은 비천한 여성들은 참된 제자의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57-61 절)

산헤드린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예수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그분의 몸(시체)을 받아 장례를 지내고 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12 제자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비겁한 자들은 아닐까요? 무서워하고 비겁한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계 21:8). 그 두려움과 비겁함은 믿음이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겐쟁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의롭다 인정하고 거룩한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앞에 비겁함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갑시다.

여인들처럼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고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또 의롭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맙시다. 너무 힘들어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고전 10:13). 주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때까지 고난의 자리에 인내하며 머물러 있습니다.

6. 대제사장들의 파수꾼이 무덤을 지킴(62-66 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후에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

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 호위병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인간적 죄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 가고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어리석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 눈이 어두워진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복종할 일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영생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생명을 대가로 한 값진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공덕을 우리에게 주어서 계속 용서해주십니다.

감사 찬송합시다. 주님을 항상 겸손히 모시고 살아갑시다.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오해받고 뺨을 맞고 친구를 잃더라도 우리의 직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지고 갑시다. 2022년 한 해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해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시다.

2.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에 순종하라 하십니까?(회개, 감사, 사랑, 섬김 등)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조금 더 생각하기

<참고> 3 절, 뉘우침(후회)과 회개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마음의 후회”(메타멜레오)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메타노이아)않았습니다.

<고난 부활 주간>의 예수님

고난/부활 주간 예수님의 한 주일은 요일별로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베다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 토요일 (유월절 6 일전)

마 26:6-13, 막 14:3-9, 요 12:1-3

2. 벧바게: 승리의 입성- 주일

마 21:1-9, 막 11:1-10, 요 12:12-19

3. 성전: 성전 정결과 가르치심-주일에서 수요일

1) 성전에서 찬양받으심-주일

마 21:12-13, 막 11:15-18, 눅 19:45-48

2) 예루살렘 근처: 열매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월요일

마 21:18-22, 막 11:12-14

3)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가르침-화요일

권위에 대한 도전: 마 21:23-27, 막 11:27-33, 눅 20:1-8

성전에서 가르치심: 마 21:28-32, 요 12:20-50

4. 감람산(올리브산): 종말에 대한 설교-수 혹은 목요일

마 24,25 장, 막 13 장, 눅 21 장

예수님을 죽일 음모(산헤드린 국회)-수요일

마 26:14-16, 막 14:10, 눅 22:3-6

5.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지막 유월절, 최초의 성찬과 설교- 목요일

마 26:17-29, 막 14:12-25, 눅 22:7-20, 요 12:1-38

6.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체포-목요일(금요일)

기도: 마 26:30-46, 막 14:26-42, 눅 22:39-46, 요 18:1-2 (요 12:27)

체포: 마 26:47-56, 막 14:43-50, 눅 22:47-53, 요 18:3-22

7.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산헤드린 국회 재판-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

마 26:57-75, 막 14:53-72, 눅 22:54-65, 요 18:12-27

8. 빌라도 법정(안토니 요새)-금요일

마 27:1-31, 막 15:1-20, 요 18:28-19:16

9. 헤롯 안디바의 궁-금요일

눅 23:6-12

10. 끌고다 십자가. 무덤-금요일

십자가의 죽음: 마 27:31-50, 막 15:21-41, 눅 23:33-49, 요 19:17-39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마 27:57-56,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1-42

11.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주일 이후 40 일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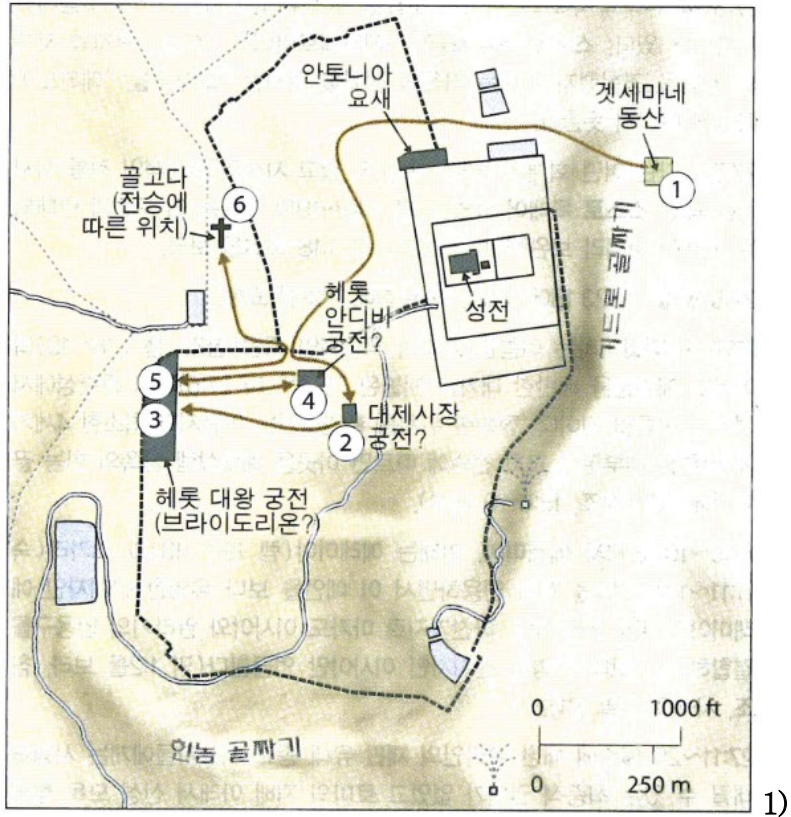
마 28:1-16, 막 16:1-13, 눅 24:1-43, 요 20 장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 설립을 명령: 마 28:17-20, 막 16:14-18, 눅
24:44-49, 요 21 장

12. 감람산(올리브산)에서의 승천 — 부활 후 40 일째

막 16:19-20, 눅 24:50-53, 행 1:6-12

<참고> 예수님의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 (출처: ESV 스터디 바이블)



- 1) 겟세마네 동산
- 2)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감(위치 불명), 그는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냄
- 3)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냄
- 4)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롯이 보냄(누가복음 23:7-12)
- 5) 빌라도에게, 헤롯이 다시 보냄
- 6) 골고다 십자가